

삼국 사람들은 말이 서로 통했을까

2017. 9. 12.

하일식 *

1. 종족, 문화의 유사성
2. 백제인과 고구려인
3. 신라인과 백제인
4. 고구려인과 신라인
5. 마무리하며

1. 종족, 문화의 유사성

흔히 말하는 진수(陳壽) 『삼국지』 동이전의 정식 제목은 ‘오한선비동이전(烏丸鮮卑東夷傳)’이다. 진수는 오환·선비와 구별하여 ‘동이’라는 범주로 부여, 고구려, 동옥저, 읍루, 예(濊), 한(韓), 왜를 서술하였다. 이 속에 한민족의 기원을 이루는 종족, 국가들이 포함된다.

고구려전에서는 “동이의 옛말에 따르면 부여의 별종”이라든가. “말이나 풍속에 부여와 같은 점이 많고 기질이나 의복은 차이가 있다”라고 했다. 동옥저도 “말은 대체로 고구려와 같지만 좀 다른 경우도 있다”고 썼고, 예(濊)도 “노인들이 고구려와 같은 종족이라 한다”든가 “언어와 예절은 고구려와 같지만 의복이 다르다”라고 기록했다. 다만 한(韓)은 고구려나 부여와 비교하지 않고, 삼한 상호간의 같은 점과 차이를 기록하고 있을 뿐이다.

한국 고대인들은 국가와 종족을 달리하면서도 말로 의사를 통하는데 지장이 있었을까, 아니면 통역을 필요로 할 정도로 말이 달랐을까? 국어학자들 가운데는 삼국의 말이 크게 달랐다고 추정하기도 하고, 대체로 오늘날의 심한 사투리 정도의 차이가 있었을 뿐 의사 소통에 큰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니었다고 추정하기도 한다. 전자는 소수의 견해이고, 후자가 다수 견해이다.

그러면 역사학에서는 어떻게 추정하고 있을까? 역사학적 방법론으로 한 걸음 다가가보자. 기록에 남아 있는 삼국인 사이의 만남과 교류 사례를 살펴보면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 백제인과 고구려인

건국신화에 따르면 백제의 지배층은 고구려로부터 갈라져 나온 무리였고, 그보다 더 소급하면 부여족 계통이었다. 그래서 538년 성왕은 사비(현 부여)로 수도를 옮긴 뒤에 국호를 남부여로 칭했던 적이 있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고구려인과 백제인이 말이 달라서 의사 소통에 지장을 받았을 것 같지는 않다.

* 연세대 사학과 교수. 한국역사연구회 회장 역임, 현재 한국고대사학회 회장 『신라 집권관료제 연구』(2006, 혜안), 『고려시대 사람들의 삶과 생각』(공저, 2007, 혜안), 『한국고대사 산책』(공저, 2017, 역사비평) 외 고대사 논문.

475년 백제는 고구려의 공격을 받아 한성이 함락되고 개로왕이 붙잡혀 죽임을 당하였다. 그런데 『삼국사기』는 이보다 앞서 고구려에서 도림(道琳)이라는 승려를 첩자로 보내 개로왕을 바둑에 빠지게 하고, 역대 왕릉을 다시 꾸미며 성과 뚝을 쌓는 등 토목공사를 일으키게 하여 백성의 원망이 일어나게 했다는 이야기를 적었다. 양국 사람들이 직접 접촉한 사례이지만 판단하기에 부족하다.

더 상세한 사례로 양국 사람들이 직접 맞닥뜨려 대화를 나눈 경우가 있다. 백제 성왕의 아들 여창(餘昌 : 뒤의 위덕왕)이 군사를 이끌고 북쪽으로 진격하여 고구려군과 전투를 벌인 상황이 『일본서기』에 전하는데, 좀 길지만 전체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겨울 10월 백제 왕자 여창(餘昌)이 나라 안의 모든 군대를 내어 고려국(高麗國)을 향했다. 백합(百合) 들판에 보루를 쌓고 군사들과 침식을 같이 했다. 이 날 저녁 바라보니 넓은 들판은 비옥하고 평원은 아득한데, 인적이 거의 없고 개 짖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얼마 후 갑자기 북과 나팔소리가 들려 여창이 크게 놀라 북을 쳐서 대응하였다. 밤새 굳게 지키다가 새벽이 되어 일어나 텅 비었던 들판을 보니 군대가 푸른 산처럼 덮였고 깃발이 가득했다.

날이 밝자 목에 경개(頸鑑: 목을 두른 비늘갑옷)를 입은 자 1기(騎), 작은 징을 쫓은 자 2기, 표범 꼬리를 장식한 자 2기, 모두 합해 5기가 말고삐를 나란히 하고 와서 물었다. “어린아이들이 말하길 ‘우리 들판에 손님이 와 있다’고 하니 어찌 마중나오는 예의를 차리지 않겠는가. 우리와 더불어 예로써 문답할 만한 사람의 이름과 나이, 관위(官位)를 미리 알고자 한다”고 하였다.

여창이 “성은 (너희와) 같고(同姓) 관위는 간술(杆率)이며 나이는 29세이다”라고 대답하였다. 백제 편에서 반대로 물으니 역시 앞의 법식대로 대답하였다. 드디어 표를 세우고 맞붙기 시작하였다. 이 때 백제가 고려의 용사를 창으로 찔러 말에서 떨어뜨려 머리를 베었다. 그리고 머리를 창끝에 찔러 들고 돌아와 군사들에게 보이니, 고려군 장수들의 분노가 더욱 심하였다. 이 때 백제군이 환호하는 소리가 천지를 찢을 듯하였다. 그 부장(副將)이 북을 치며 다시 내달려 싸워서 고려왕을 동성산(東聖山) 위로 물리쳤다. (『일본서기』 흠명14년, 553년)

위 기록 내용을 보면 백제의 지배층은 고구려 장수들과 마찬가지로 부여씨를 칭하며,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전장(戰場)에서 갑자기 맞닥뜨려 나누는 대화에 통역을 끼고 있었으리라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고구려인과 백제인이 말로 의사를 통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었으리라 판단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백제인이 고구려로 도망간 사례가 종종 있는 것으로 보아서도 그렇게 추정된다.

그런데 백제의 경우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언어가 달랐던 듯한 기록이 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다. 즉 『주서(周書)』 백제전에는 “왕의 성은 부여씨로 ‘어라하(於羅瑕)’라고 부르며, 백성들은 ‘건길지(鞬吉支)’라 부르니 중국 말로 모두 왕이라는 뜻이다”는 구절이 있다. 다만 계층 사회에서 지배층이 격식을 갖추어 쓰는 표현과 피지배층이 쓰는 일상어가 다른 경우가 종종 있다. 그래서 왕을 뜻하는 말을 한자로 표기할 때, 지배층과 백성들 사이에 차이가 있음에 주목하여 그리 기록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백성들이 사용하는 말은 지배층의 영향을 점차 차이가 줄어들었으리라 추정한다.

3. 백제인과 신라인

그런데 마한과 진한의 언어가 서로 달랐던 듯한 중국 기록이 있다. 『삼국지』 진한조에 기술된 마한과 진한의 언어에 대한 다음 기록이다.

그(진한) 언어는 마한과 달라서 나라(國)를 방(邦)이라 하고, 활(弓)을 호(弧)라 하며 도적(賊)을 구(寇)라 하고, 술잔 돌리는 것[行酒]을 行觴이라 한다. 서로 부르기를 모두 도(徒)라 하여 진인(秦人)과 유사하니 … (『삼국지』 동이전 진한)

그러나 실제로 말이 통하지 않을 정도로 달랐던 것이 아니고, 한자어를 쓰는데서 차이나는 몇 가지를 인상 깊게 기록한 내용이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 구절이 기록된 배경을 찬찬히 짚어보고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실제 ‘무리·집단’을 가리키는 뜻으로 도(徒)라는 글자는 신라인은 물론 고려시대까지도 곧잘 쓰였다.

한편 6세기 전반, 백제인과 신라인의 의사 소통을 보여주는 기록도 있다. 『양서』 신라전에는 신라 법흥왕 때 백제 사신을 따라간 신라 사신에 대한 기술이 보인다.

그들(신라)은 관(冠)을 유자례(遺子禮)라 하며, 저고리(襦)를 위해(尉解), 바지(袴)를 가반(柯半), 신(靴)을 세(洗)라 한다. 절하는 방식과 걸음걸이는 고구려와 비슷하다. 문자가 없어서 나무에 금을 새겨 신포로 삼는다. 의사는 백제의 통역이 있어야 통할 수 있다. (『양서』 신라전)

이 기록에서 신라에 문자가 없다는 것은 착오이다. 「포항중성리비」(501), 「포항냉수리비」(503) 등 이보다 이른 때 만들어진 신라 비석들이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때 신라인은 중국어에 능통하지 못하여 백제인의 통역을 거쳐 양나라 관리와 소통했다. 그런데 위 기록을 보면 신라인과 백제인이 말이 통하지 않아서, 중간에 통역자가 있었던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당시 신라 사신이 중역(重譯)을 거쳐 양나라와 의사 소통하지는 않은 듯하다.

백제인과 신라인이 큰 어려움 없이 의사를 통할 수 있었다고 추정되는 더 분명한 사례는 김유신의 부하 이야기에서 확인된다. 『삼국사기』 김유신전에 나오는 이야기를 간추리면 이렇다.

김유신의 부하 조미갑(租未坤)이 부산현령(夫山縣 위치는 진해, 평택설이 있음)으로 있다가 백제에 잡혀가서 임자(任子)라는 귀족집 노비가 되었다. 성실하게 일을 하니 의심을 받지 않은 까닭에, 탈출하여 신라로 돌아와 김유신을 만났다. 그랬더니 김유신은 “임자가 백제의 일을 좌지우지한다고 하는데, 자네가 다시 돌아가 내 말을 전하라”고 했다.

조미갑은 “제게 일을 맡기시니 죽어도 후회가 없습니다.”라고 답하고 돌아가서 틈을 보아 임자에게 말을 전했다. “실은 신라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김유신 공이 ‘만약 그대의 나라가 망하면 우리에게 의지하고 우리가 망하면 내가 그대에게 의지하겠다’라는 뜻을 전해라 했습니다.” 임자가 입을 다문 채 말이 없자 조미갑은 두려워 물러났다.

몇 달 만에 임자가 조미갑을 부르더니 “지난 번 이야기한 김유신의 말이 무슨 뜻이냐?” 물으니 조미갑은 놀라 두려워하며 똑같이 대답했다. 임자가 “잘 알았으니 돌아가 그렇게 고하여도 좋다”고 했다. 조미갑이 돌아와서 김유신에게 이야기하였고 백제의 안팎 사정까지 자세하게 알렸다. (『삼국사기』 김유신전)

격렬한 전쟁의 와중에 사로잡혀 노비가 된 인물이 김유신과 임자 사이를 오가면서 은밀한 뜻을 교환했다는 이야기이다. 조미갑이 백제에서 노비살이 하면서 백제의 내부 사정을 파악하고 돌아와서 김유신에게 상세히 알렸다고 한 점도 주목해야 한다. 백제어를 모르던 신라인이 짧은 기간에 내부 사정을 파악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양국 사람들이 비교적 자연스럽게 말로 소통한 사례로 꼽을 수 있다.

그밖에 다른 사례들도 있다. 즉 김유신이 백제군과 대치할 때, 야간에 백제 염탐꾼이 찾아올 것을 예상하고 “내일 증원군이 올 것을 기다려 결전할 것”이라는 말을 퍼뜨리게 했다. 과연 백제 첩자가 이 말을 듣고 가서 보고하니, 백제 장군 은상은 두려워서 망설였다. 그 틈을 타서 신라군이 대대적으로 공세를 퍼서 크게 승리했다는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종합하면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 백제인과 신라인은 사투리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의사 소통에는 별 문제가 없었다. 백제와 신라로 국가는 나뉘어 있었지만, 크게 보아서 종족과

문화의 공통성이 있었기에 언어도 서로 통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4. 신라인과 고구려인

신라는 일찍부터 고구려의 문화적, 군사적 영향을 받았다. 특히 불교가 신라에 전해지는 과정은 처음에 묵호자(墨胡子)가 왔었고, 다음에 “아도화상이 3명의 시자(侍子)와 함께 와서 경전을 강독하니 종종 신봉하는 자가 생겼다”는 『삼국유사』의 기록을 보면 두 나라 사람들 사이에 말로 뜻을 전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던 듯하다. 놀지마립간이 즉위하는 과정에서 고구려인을 만나 나는 대화를 보더라도 이런 추정에 힘이 실린다.

비교적 상세한 내용이 담긴 사례로 들 수 있는 것이 거칠부 이야기이다.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거칠부는 젊었을 때 승려가 되어 사방을 돌아다녔다. 고구려를 엿보려고 그곳에 들어갔다. 혜량(惠亮)법사가 불경을 강의한다는 말을 듣고 절에 찾아가 강의를 들었다. 어느 날 혜량이 “너는 어디서 왔는가?”라고 묻자 “저는 신라 사람입니다.”라고 실토했다.

그날 저녁에 혜량이 거칠부를 불러 손을 잡으며 “나는 많은 사람을 보았는데 자네 용모를 보니 보통 사람이 아니다. 다른 마음을 갖고 왔는가?”라고 물었다. 거칠부는 “저는 변방에서 태어나 도리(道理)를 듣지 못하여 법사님의 덕망과 명성을 듣고 가르침을 받으려 왔습니다. 거절하지 마시고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십시오”라고 대답하였다.

혜량은 “내가 둔하지만 너를 알아볼 수 있었다. 잡힐까 걱정하여 은밀히 충고하니, 빨리 돌아가라!”라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그대의 관상은 장차 반드시 장수가 될 것이다. 만일 군사를 거느리고 오거든, 나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고 하였다. 거칠부는 “저 밝은 해를 두고 맹세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

(진흥왕 12년, 551)에 … 거칠부 등이 죽령 이북의 고구려 10군(郡)을 빼앗았다. 이때 혜량이 무리와 함께 길가로 나오자 거칠부가 말에서 내려 군례(軍禮)로 인사하며, “옛날 은혜를 입어 생명을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은혜를 갚아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혜량법사가 “나를 그대 나라로 데려가 주기를 바란다”고 하자, 거칠부는 함께 수레를 타고 돌아와서 왕을 뵈게 했다. (『삼국사기』 거칠부전)

이 이야기는 6세기 중반에 해당하는 일이다. 거칠부가 고구려 영토에 들어가 혜량법사의 설법을 듣던 중 신분이 발각되었지만 무사히 돌아왔다가 은혜를 갚았다는 내용이다. 거칠부는 꾸러 영토에 들어가기 전에 신라 말과 다른 고구려 말을 열심히 배우고 들어갔을까? 설사 그렇다고 쳐도, 고구려 말로 불경을 강의하는 자리에 앉아서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오늘날 영어에 능숙한 학생이 서구에 유학가서 전공 강의를 들을 때 맞닥뜨리는 어려움은 흔히 접할 수 있다.

따라서 거칠부가 혜량이 강의하는 어려운 불교 경전 강의를 들을 수 있었다는 점, 또 혜량과 대화하는 내용을 보면, 고구려 말과 신라 말이 의사소통이 힘들 정도는 아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통역을 필요로 할 정도가 아니었음은 물론이다.

이로부터 1세기 가량 지난 뒤에 김춘추가 고구려에 들어간 적이 있었다. 642년, 신라 대야성이 함락된 뒤 국가적 위기가 높아졌을 때였다. 그 때의 이야기를 간추리면 이렇다.

고구려에 간 김춘추가 지원을 요청하자 보장왕은 죽령 이북의 땅을 반환하라 요구했고, 이를 거절하자 감금당하였다. 그러자 김춘추에게서 청포(靑布) 3백 보를 선물받은 고구려 귀족 선도해(先道解)가 술상을 차려 와서 위로하면서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들어보았나?”며 이야기를 꺼냈다. 용왕의 병을 고치려고 거북을 육지로 보내 토끼 간을 구한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눈치를 챈 김춘추는 곧 고구려 왕에게 “귀국하면 우리 국왕에게 땅을 반환하라고 청하겠다”는 글을 올려 풀

려날 수 있었다. (『삼국사기』 김유신전)

이때는 연개소문이 실권을 잡고 있을 때이므로 실제 대화는 김춘추와 연개소문 사이에서도 오갔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데 이런 대화가 통역을 사이에 두고 이루어졌던 것 같지는 않은 것이다.

또 다른 사례도 있다. 김유신이 추석날 밤에 자제들과 대문 밖에 서 있다가 서쪽에서 오는 사람을 보고 고구려 첩자임을 알아차렸다. 대뜸 불러서 “너희 나라에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으니 고개를 숙이고 묵묵부답이었다. 김유신은 “우리 국왕이 하늘의 뜻을 어기지 않고 백성들도 맡은 일을 즐기고 있다. 이 모습을 보았으니 너희 나라에 알려” 하며 너그럽게 보내주었다. 고구려인들이 이를 듣고 “비록 작은 나라지만 김유신이 재상으로 있으니 가볍게 볼 수 없다”라고 했다고 한다. 고구려와 신라가 말이 달랐고, 신라에 첩자로 온 사람이 미리 신라 말을 익혔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앞의 여러 사례들과 종합하면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삼국사기』에는 말이 통하지 않는 접촉일 때는 그에 따른 조치가 있었음을 기록한 경우가 있다. 즉 백제를 멸망시키고 돌아간 소정방이 다시 출정하여 고구려 평양성 부근에 주둔하며 군량이 모자라서 신라에 지원을 요청한 적이 있었다. 김유신이 군량 지원에 나섰는데, 『삼국사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양요에 진영을 설치하고 중국말을 할 수 있는 김인문·김양도 및 (김유신의) 아들 김군승 등을 보내 당나라 진영에 가서 왕의 뜻으로 군량을 보냈음을 전하였다.”(『삼국사기』 김유신전, 662년)

5. 마무리하며

국어학자들은 삼국의 낱말을 비교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연구한다. 대체적인 견해는 의사 소통에 지장이 없을 정도였다는 것으로 수렴된다. 역사 기록에 보이는 여러 사례들을 참고하면, 사투리 정도의 차이가 있었을 지라도 말로 뜻을 통하는데 큰 지장은 없었으리라 추정된다.

이는 종족적 유사성, 문화와 풍속이 비슷하다고 기록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중국 사서에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 3국을 서로 비교하는 언급이 종종 보인다. “언어와 복장은 고려와 거의 같지만, 걸을 때 두 팔을 벌리지 않는 것과 절할 때 한 쪽 다리를 펴지 않는 것은 다르다”(『양서』 백제전)는 식이다. 이는 그들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도 3국이 나라는 다르지만 비슷한 부류로 간주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점들은 고구려를 중국사로 편입하려는 시도를 강력히 반박하는 근거가 된다.

오랜 전쟁을 거치며 삼국인 사이의 접촉과 교류가 매우 빈번해지는 과정을 거쳐, 그리고 통일 이후에는 언어와 문화의 공통성은 더욱 짙어졌을 것이다. 그 뒤에 신라어는 고려의 중심되는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한국역사연구회, 2005 『삼국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청년사
경상북도, 2016 『신라사대계』(1~30권)
한국고대사학회, 2017 『우리시대의 한국고대사 1, 2』, 주류성
젊은역사학자모임, 2017 『사이비역사와 한국고대사』, 역사비평사
한국역사연구회, 2017 『한국고대사산책』, 역사비평사

※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총 30권) 인터넷 열람 주소(e-book)

▶ http://www.gb.go.kr/open_silguk/silla_history/main.do ◀

<MEMO>

<절취선>

2017년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 시민강좌 <시민 참여> 질문지

- *강의 내용을 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여기에 질문 내용을 작성해 주십시오.
- *질문지는 강사의 강의를 끝난 다음, 중간 휴식시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